

창간1주년
기념 특집

1999년
9월 15일
제 13 호
(1998년 9월 15일 창간)

춘천성시신문

- 전신인 전영역의 복음화 운동
- 기독교 연합운동
-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 민족복음화 전략도시 운동
- 세계복음화 지원운동

발행·인쇄인: 조남진 편집인: 조충환 (200-091) 춘천시 호자1동373-90 대표전화: (0361)256-1260-1 FAX: (0361)257-1260

성시운동 전국적으로 확산

**홀리클럽 전국연합회 결성계기로, 명예회장에는 양인평, 전용태 장로
대표회장 신윤표 장로(대전) 조남진 장로 공동회장 맡아,
춘천 청주 대전 인천 이어 대구 전주 광주 경주서도 참여**

대전 홀리클럽(회장 신윤표 장로) 창립1주년기념 및 전국홀리클럽연합회 결성대회가 10일 오후 7시 대전광역시 구청대회의실에서 전국에서 모인 홀리클럽 관계자와 대전시내 기독교지도자 등 2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72년 전국 처음으로 춘천에서 태동된 성시화운동은 96년 6월 춘천 홀리클럽을 발족시킨 이래 9월에

춘천성시운동본부를 창립했고 이어 청주, 대전, 인천 등지에서 홀리클럽과 성시운동본부로 발족시켜 전국적인 규모의 성시운동이 가능하게끔 여건이 마련됐었다.

성시운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면서 기독교인의 생활신앙을 이끌어 갈 운동체제로 역할을 다한 홀리클럽은 기 조직된 곳 이외에 대구가 9월 21일 성시운동본부 발족과 사

업이 착수될 단계이며 전주, 광주, 경주 등에서도 이날 대표자가 참석하였으며 연내 발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 홀리클럽 창립1주년 기념예배에 앞서 거행된 전국 홀리클럽연합회 창립대회는 그동안 각 지역의 홀리클럽 창립의 산과 역할을 해 온 전용태(전 검사장)장로, 양인평(대전지법원장)장로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대표회장엔 신윤표(대전홀리클럽회장)장로를 선출한 후 인천, 청주, 춘천회장이 공동회장을 맡아 운영하도록 했다.

앞으로 홀리클럽연합회는 성시운동의 전국적인 확산과 기독교인의 생활신앙이 뿌리내리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시



임택창 목사
(춘천석사교회)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수도도 아니하고 길상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임

은 것이 이 꽃 하나만 필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솔로몬이 건설한 문화의 도시, 솔로몬이 성취시킨 경제적 성장, 그리고 솔로몬이 양성한 군사적 강대함은 인간이 볼 때 위대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 도시에 함께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한 송이 백합화 보다 못하다고 판단하십니다. 이화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춘천도 아름답고 훌륭하고 우리는 자부합니다. 또 이곳에는 350여 교회가 있고 많은 기독교적 선교단체가 있

으며 또 기독교의 영향이 미치는 사회사업 단체가 봉사사업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든 기관은 제각기 그리스도의 뜻을 실현하려고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해, 협력, 그리고 일을 할 때 춘천의 앞날은 밝으리라 확신합니다. 성시신문은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시의 곳곳을 발굴하여 널리 알리려고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성시신문 발간 1주년을 맞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독교 언론의 사명 다하기를



김주환 목사
(순복음춘천교회)

성시신문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간 22장29절에 "내가 자기사 앞에 근심한 사람을 보았노니 이러한 사람은 왕위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

다. 자신의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귀한 사람이 될 것이라 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시운동을 시작한 지가 여든 28년째, 성시운동 본부가 조직된 지가 3년, 신문발행이 1년이 되었습니

다. 지나온 걸음걸이를 돌아보면 많이 미진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서 고쳐

"종이 들것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는 사무엘의 심정을 우리 모두가 가슴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신윤표 대표회장
(한남대 교수)



조남진 공동회장
(춘천성시운동본부장)



양인평 명예회장
(대전지법원장)



전용태 명예회장
(전 대구검사장)

창간 한돌을 축하합니다



정상국 목사
(생림현교회·춘천기독교교회연합회)

춘천을 성시화 하자는 소망은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이 성시화를 반대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공감하고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기획하고, 추진하여 모두에게 공감대를 얻어나가느냐입니다. 상품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디자인과 포장과 광고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구매욕구가 적어 판매가 되지 않듯이 춘천의 성시화를 모두가 공감하면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원인을 바로 진단하여 치료하는 일을 성시신문이 담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천 성시신문은 춘천성시화를 위해 기발한 포장과 광고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여 춘천성시와 운동

에 일조해야 합니다. 성시신문을 통하여 춘천성시화의 필요성과 활동과 방향과 후원을 유도하므로 많은 동조자와 협력자를 만드는데 신문의 영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신문의 공동목표는 공정한 보도, 사실검정, 균형적 집필입니다. 그 목적에 충실하여 무지를 깨우치고 부정적 반응을 긍정적 반응으로 바꾸어 협력과 협동을 도출하여 연합의 꽃을 피우게 해야 합니다.

한돌을 맞은 어린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귀여움을 독차지 하듯이 춘천성시신문도 창간 한 돌을 맞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기쁨을 주는 신문이 되기를 기도하며 춘천성시신문 창간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시신문 명예기자 활동개시

- 교회41, 선교단체26, 운영위원15, 총 82명 -

춘천성시신문(발행인 조남진)은 9월 10일 오후 7시 World Vision 3층 강당에서 명예기자 82명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이날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명예기자들의 활동에 따라 모든 교회, 선교회, 성도들의 소식이 누누이 전해질 것이며 많은 간증과 미담사례, 영의양식, 그리고 시민생활의 불편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이날 위촉식에서 명예기자 82명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이날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명예기자들의 활동에 따라 모든 교회, 선교회, 성도들의 소식이 누누이 전해질 것이며 많은 간증과 미담사례, 영의양식, 그리고 시민생활의 불편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성시신문 명예기자 명단은 김용은 김경원 이승호 김준배 홍달생 염동철 윤정희 박소영 박유미 이상순 여운영 박재복 박인선 김정주 최혜리 안근자 함은주 이종삼 송고민 최병일 고석복 김정임 홍훈하 김동식 김용신 신재

권 김명준 김주복 최경자 정미선 이윤환 박재호 민경원 김창희 홍순신 최백영 김명하 민경옥 김하선 김윤인 이광환 정병자 김석범 김부회 기경희 강인석 경두호 최형선 김동환 한덕수 주기태 권은순 백기현 진상용 이한준 심효정 신윤호 신윤보 홍유미 성명연 마중수 연정순 성기운 김미미 고정복 조준교 이병철 이미애 최재호



축

성시신문 창간1주년을 축하합니다



담임목사 이원호
PASTOR LEE WON HO

부 목사 강영구 한근호 주명철 이석윤
신교사 박운식(태국) 이종길(파라과이)
전도사 정병기(유학) 이윤복
홍대승 김유훈 한대섭 강성용
지휘 김용대 심윤보 박찬형 신보영
반주 황형순 박지연 심세정 신언미
김현진 박달남 박주영 정경희
최윤지

원로장로 이응만
명예장로 홍재향 최용진
장로 백운선 이종섭 문영식 박대순
심철부 김용배 이성용 박상운
정준섭 김기수 김용대 조정국
허남현 구자진 심윤보 정호강
홍순봉 김남철 홍광유



2000-0300 춘천시 요선동 114
114 Yo son-Dong, Chuncheon, Korea
TEL 교회 253-2004~5, 251-2006, 255-1808, FAX 244-3005, 담회장실 255-1800

창간 1주년 기념

창간1주년 인사



조 남 진 장로
(성시운동본부장 겸 발행인)

호천성시신문이 창간된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72년 호천성시운동이 시작된 이래 24만만인 96년에 호천성시운동본부 창립 2주년을 계기로 성시신문을 창간해 되었는데 벌써 1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비록 월간이라고 하지만 한달도 주당하지 않고 신문을 발행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많은 목사님 성도님들의 기도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몇몇 교회와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후원

이 있던 하였으나 운동본부 운영비와 신문을 발행하는 데는 절대적인 부족속에서 일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시신문의 앞날은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성시운동에 뜻을 같이 하시고 지도해 주시기로 하셔서 지 원도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 성시신문은 호천성시운동을 활성화하는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창간 1주년을 기해 각 교회에서 추천해 주신 성시신문 명예가자 82명을 위촉하고 이들을 통해 각 교회와 호천교회, 나아가서는 강원도내 기독교계의 아름다운 소식들이 성시신문에 보도될 것입니다. 성시신문을 내 교회, 내 가정에서 만드는 신문처럼 아껴주시고 길러주시길 때 신문도 발전하고 성시운동도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성시운동 활성화와 성시신문 발전을 위해 기도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목사님들과 성도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열악한 환경속에서 신문을 제작해 주신 제작진의 노고에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 창간 1주년을 맞이하면서 -



이 범 천 집사
(전국가정보대학원장)

할렐루야!

거룩한 열매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시신문 창간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1년전 생명의 말씀이 복음의 전도지인 호천성시신문을 창간할 때 그 막중한 소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는 간절한 소망 때문에 몸서리 떨고 떨리는 마음으로 물론 동산같이 푸르고, 어둠에 빛을 비추는 성시신문이 되어주기를 기원하는 축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의 호천 성시신문은 지난날의 두려움과 걱정은 하나의 기우였으며, 매달 번도해 가는 성숙한 성시신문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동안 두에서 유를 만들어 낸 조남진 장로님, 조충환 목사님, 그리고 이학규 장로님의 헌신적인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새벽은 새벽에 눈은 자만이 볼 수 있다고 했듯이 성시화를 위한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새벽을 깨우는 열정은 기도로서 이루어진 지난날의 모습을 변화시켜, 건강으로 하나님도 하나님, 주님도 하나님, 믿음도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을 일깨워 주님 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님 모습으로 성결과 복사의 수고를 다하고 계시는 호천의 기독교인 여러분에게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이 나라

를 지극히 사랑하시어 27년전 이곳 호반의도시 호천에 한국성시화운동의 첫 불을 지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제 다시한번 깨닫고 주님의 사명을 확실히 감당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일부 그리스도인의 패역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사건 있는 곳에 기독교인 있다'는 말이 세간에 회자되는 참으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통성에 의한 열 사람이 없어 멸망되었음을 우리는 깊이 자각하고, 성시신문이 아마도 오늘의 위기를 양심 배출하는 신자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시신문의 많은 독자들이 회개(메타노이아)로써 거듭(아노테나)을 수 있도록 먼저 올바른 성경공부를 통해 세속적인 환경을 버리고 마음을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우리로 붙수 있는 해안을 주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여 축복받은 성도들의 간증과 사례증서의 기사화로 복음의 빛이 온누리에 가득차서 오늘의 위기를 타개하는 기도의용사들을 양성하여, 호천은 물론 온 강원도인이 성도가 되어 이 한반도가 주님의 복음이 넘치는 국가로 크게 변모되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19세기는 '광스 브리타니카(영국 지배의 광화)'였고, 20세기는 '팩스 아시아'가 되었다면, 21세기는 '팩스 아시아'시대가 도래할 것인 바 이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주도할 국가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는 확신하에 2000년대의 주역이 될 우리 기독교인들의 하나님께 주신 이 지구를 살리고 인류를 구원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끝으로 신명나무 심자가를 이민족의 마음속에 심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여 그리스도의 계절이 하루하루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성시신문 창간1주년을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성시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백 계 섭
(호천성시)

호천성시운동본부에서 발행한 성시신문이 창간1주년을 맞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이 있기까지 성시신문을 알차게 편집, 발행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호천성시신문은, 시민이 서로 믿고 법과 공경도덕을 잘 지키며 살고

살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아름다운 도성을 만드는 성시와 운동에 앞장섰으며, 또한 호천의 기독교인들이 솔선수범하여 모범시민, 일동시민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특히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기독교계의 다양한 소식체로 기독교 연합운동에 기여하였으며 기독교와 사회적 실정과 시민광장에 장기기증, 수혜지 지원소식 등을 다양하게 편집하여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소식을 전함으로써 복음전도에도 어느 흉보매체보다도 큰 기여를 하였습니

다. 앞으로 성시신문의 특성을 심본 발휘하여 새로운 21세기를 주도하는 '살기좋은 호천'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이질로가 되어 줄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문을 매회 편집 발행하신 분들께 고간의 노고를 격려드리며, 성시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성시화를 선도하는 신문 되기를



홍 병 협
(호천경찰서장)

호천성시와 운동본부에서 발행하는 성시신문이 오는 9월 15일로 창간1주년을 맞게 된 것을 호천경찰서 온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간 호천성시와 운동의 확산과 알찬 성시신문 발행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조남진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시화 운동이 호천에서 뿐 아니라 청주, 대전, 인천 등 전국 각지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어 가고 있는 이때 이 운동의 더 빠른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는 성시신문의 선도적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도 중추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내대로 우리 성시신문이 믿는 사람들의 신문, 호천인들만의 신문이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후로 호천성시와 운동이 성령의 불길처럼 번져가 믿음의 성시로서 예루살렘보다 더 나은 성지가 될 수 있는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다시한번 성시신문 창간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한 신문으로 자리매김 되기를



허 천 정로
(강원도회의장)

가을 들녘에는 황금색 일한 보람이 알알이 얼굴에 가고 호천도성은 성시화운동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결실의 계절을 맞아 '전시대 전역의 복음화 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민족복음화 전라도시 운동, 세계복음화 지원운동을 추구하면서 창간 1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

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호천성시신문'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교회, 선교단체 등의 소식과 양식을 기독교인들에게 권하고 깨우침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 기독교연합을 촉진하며 호천을 성시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따뜻한 교회 모범적인 신자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신앙적인 지식과 경건적인 말씀이 호천도성안에 도내 모든 지역에 널리 전파되어 교회들이 하나되고 주민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신문의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아 호천성시신문이 모든 사람에게 깨달음과 깨침을 주는 신문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성장하기를 바라며 창간1주년을 다시한번 축하합니다.

복음사역 위해 동분서주 하는 권오서 목사

8월 26일부터 5일간 본교회에서 자체부흥회를 인도하였으며, 9월 6일부터 9일까지 서울대신교회 부흥성회를 인도하였고, 9월 16일 원주제일교회에서 열린 감리교 경향개회 공회회에 참석하였으며, 호천지방장 각교회원인 문제를 처리하였다.

동부연회장로회 속초교회에서 헌신예배

유태희 동부연회장로 회장(호천제일교회)은 9월 19일 오후7시 속초감리교회에서 회원 60여명과 함께 장로헌신예배를 드리고 EXPO관람을 안내해 주

고하고 성전건축 외부공조공사 마무리에 따른 내부실비 계획을 추진하였고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인도대시 아 자카르타에 참관한 제2감리교회인 '늘루르교회' 참관예배와 성회를 인도할 계획이다.

이비, 전국강도에서 보내온 수제어인 금 75만원과 8월 26일 신원원감리교회 수제어에게 전달하였다.

중앙감리교회 전축위원장 임봉수 장로

호천중앙감리교회는 9월 1일 제3대 전축위원장으로 임봉수 장로를 선출하였다. 임장로는 8월 31일 교직생활 43

년을 마감하고 퇴직하였으나 요즘은 성서 세미나 회원으로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기드온 춘천캠프 임원개선 및 사업보고

한국기드온협의회 춘천캠프회장 노재한 장로는 9월 2일 오후7시 99년도 사업실적보고, 2천년도 임원을 개선했다. 사업실적은 각급학교, 군부대, 병원, 성서보급 5만1천부, 성서헌금전달 1천7백만원(23교회 모금)

교회부장 조은제(순복음교회) 기금부장 김기태(중앙감리) 회원부장 김홍규(동부감리) 부회장 김태원(동부감리) 재정부장 남수영(중앙감리) 감사부장 유태희(제일감리) 간사부장 맹영웅(광명감리) 성서부장 이학규(석사감리) 부인회장 오정숙(동부감리) 부인회부장 김명숙(석사감리) 부인회총무 현복희(석사감리)

2천년도 임원개선 회장 노재한(신원원감리) 총무 최종인(순복음교회) 신장부장 이호승(우두감리)

알로에 마임



이판호 권사 · 윤영순 집사

춘천시 효자3동 756-3

☎ (0361)242-2665 / 241-2489 / 242-2666

춘천불고기

생갈비, 갈비, 등심, 불고기, 냉면, 육회, 갈비탕, 탕종류

춘천시 요선동 14-5
☎ (0361)256-5555

석정갈비

주자장 완비, 차량준비

춘천시 동면 장하리 80-2

☎ (0361)252-5221 / 251-0287

명금당

금 · 은 · 보석 · 시계



강아길 · 최난홍 권사님

춘천명동 중앙시장 입구

☎ (0361)254-3373 / 253-3388



성시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기독교계 뉴스

한·일 기독교청소년 문화교류에 앞장선
중앙장로교회

춘천중앙장로교회(사공정 목사)는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13명의 성도와 함께 자매교회인 동경요코하마성교회(오구리겐 목사)를 방문, "기초가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선교하고, 한·일청소년

클럽회 및 찬양발표회를 가졌다. 동교회는 94년부터 매년 여름방학기간을 이용, 양교회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일 기독교 청소년들의 올바른 문화교류에 앞장서고 있다.



도경찰청에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현판설치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김정삼 변호사)는 9월 8일 강원도지방법경찰청 민원실에서 김진선 도지사, 허천 도의장, 이병관 지방경찰청장 등 도단위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끼저거는 생명을 구하기 위한 운동이 경찰관사에서 일고 있는 것은 칭찬해야 할 일이며 우리 기독교인들은 솔선하여 이 운동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전도협회 교회 교사강습회

-매주 월요일은 주야간반 이론과 실기 교육-

한국어린이전도협회는 9월 27일(월) 베드로신교센터 4층 사무실에서 시내 모든 교회 교사를 대상으로 매주 1회 정기적으로 강습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어린이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효과적인 전도방법에 관심있는 교회와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강습회는 매주 월요일 주간반(오전10시~12시30분) 야간반(오후 7시~9시30분)을 운영하므로 편리한 시간에 참석할 수 있다. 교육내용은 시각공과, 선교교과, 찬양운동, 특강 등이며 등록비는 5만원으로

랜드북 특강교재비 2만원, GNC교재비(9주용) 3만원이다. 주일학생이 감소되고 있는 이때, 모든 교회 교사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통하여 어린이들을 교회로 모아 양육할 수 있는 역할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0361)253-1443
200-092 춘천시 효자2동 312-1 베드로병원 4층

찬양운동 연구원에서는 교회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에게 효과적인 찬양교육 이론과 실습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 일시: 99. 10. 4(월)~10. 9(월)
• 시간: 저녁 7시~9시30분까지
• 문의: 한국어린이전도협회 ☎ 0361)253-1443

2군단교회 CBS어린이합창단 초청 공연

미주지역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CBS어린이합창단(관장 신종철 안수집사)은 9월 19일 7시 30분 2군단 한빛교

회(박명수 목사)에서 찬양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약한교회 위한 자비량 부흥성회 인도

이학규 장로(성서본부 사무총장)는 지난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포항 약전제

일장로교회에서 자비량 부흥성회 강사로 은혜가 충만한 부흥집회를 인도하였다.

인도네시아에 늘푸른교회 세운 중앙감리교회

-자카르타중앙교회 이후 두번째 교회 창립-

춘천중앙감리교회(권오서 목사)는 99년 8월 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에 늘푸른교회를 창립하고 김진선 부목사를 담임목사로 파송하였으며 9월 26일 현지에서 창립예배를 드린 계획이다. 90년에는 여성호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91년 12월 자카르타중앙교회(조시철 목사)를 창립, 회교국가에서 두번째 교회 설립이라는 그 의미가 크며, 원주민 교회지도자 육성을 위해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침례교 춘천지방 남전도회 연합수련회

춘천지역 남전도회 연합회(회장 황환문 안수집사)는 8월 20일~21일까지 고성군 진부령 알프스리조트에서 수련회를 가졌다. 수련회는 예배 및 주제발표, 토론회 그리고 7개 항의 제목으로 통성기도를 하

였으며 거두리 베다니굴(차덕수 목사) 무의탁 노인을 위해 매월 5만원과 물품 파송 문경식 목사에게 매월 5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정두호 집사 제공)

동부연회 입법의회 대의원 김기태 장로

김기태 장로(중앙교회)는 감리교 동부연회 입법의 대의원으로 10월 입법 총회에 참석 예정이며 9월 16일 원주제일교회에서 있는 장청개장 공청회와 9월 28

일 CBS 시청자 위원회에 참석 예정이다. 그리고 10월 초 광주광역시에서 있는 제3차 한국기독교 정기총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동강원교회 목회자 가족수양회(노회장: 사공정 목사)가 8월 9일~12일 진부령기도원(문민동 목사)에서 목회자가족 총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필리핀선교사의 세미나와 선교보고회를 가졌다.



'김해종감독 초청 부흥성회 개최' 석사감리교회(임태정 목사)는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김해종 목사(미국뉴욕연회김목)를 초청, "어려운 행복의 길로 초대합니다"라는 주제로 예수사랑대안치 부흥회를 열고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인도선교사 파송예배' 8월 25일 오후 7시30분 소양제일교회(이주호 목사)에서 춘천크리스찬포럼(CCF) 회장 박인관목사의 8개교회 목사와 성도들은 이경호 선교사 인도파송예배를 드렸다.



'일본인 목사 초청 부흥회 개최' 춘천의 일본선교회는 순복음춘천교회(김주현 목사)에서 9월 6일까지 일본 부흥선교단 회장 다나카 마사오 목사를 강사로 초청, "일본을 반회시키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일본선교를 위한 부흥회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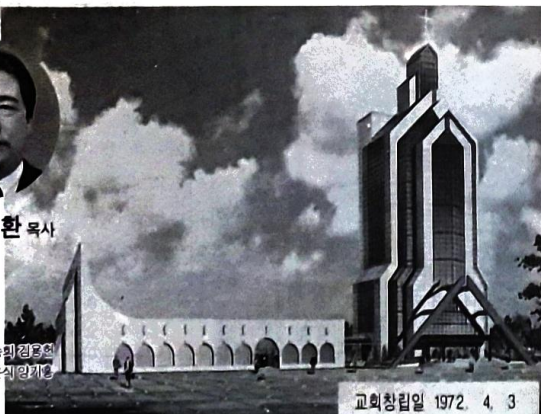
축

춘천의 복음신문으로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김 주 환 목사

1대교구장: 김성수 목사
2대교구장: 진희종 목사
3대교구장: 오의식 목사
장로: 조남진 최충인 주승희 김용희
백원일 이자수 임운식 임계영
김진현 조은제



교회창립일 1972. 4. 3

200-092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651

☎ 교회사무실 253-2741, 256-2741 담회장실 253-2742 목사관 253-2743
• 1대교구 253-2841 • 2대교구 253-2842 • 3대교구 256-2741

유지한 변호사 사무소



변호사 유 지 한 권사
(기독교 대한리교회 춘천제일교회)

믿음으로 성실하게 변호하겠습니다.

춘천시 효자동 709번지
☎ (0361)255-5601~2

독자들의 의견



김주현장로 (형곡제2교도장)

1년밖에 되지 않는 간행물이지만 편집, 교정, 인쇄 및 내용등 모든면에서 어느 유수 간행물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신문을 감히 자랑하고 싶습니다.

조금더 욕심을 부리지면 전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성도들의 간증기들을 더 많이 게재 하시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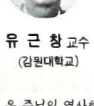
앞으로도 춘천 성시화운동 본부가 추진하는 기도회와 전도사업 그리고 신문 발간등 모든 일들은 춘천을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국자장로 (춘천제2장로교회)

은 교회 소식과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춘천성시신문이 민족 복음화의 전파의 선봉이 되고 춘천에서 기독교 연합운동과 도시복음화를 위한 기독교인으로 성장해 나가길 부탁드립니다.



유준창교수 (강원대학교)

통념상 하나의 신문이 출간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본과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불가능한 여건 속에서 성시신문이 창간호를 시작으로 벌써 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은 주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확신하며 또한 성시신문의 발전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와 염으로 헌신하신 여러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젊은 사투실과 적은 인력, 그것도 성시운동의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하며 포돌리는 제정으로 발간되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은혜가 됩니다.

창간하여 1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제는 계획된 방향으로 성시신문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해 나갈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계의 소식을 전달하는 매체를 넘어 성시화운동의 복음에 일치되는 거룩하고 평화로우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의 도가 되도록 모두가 협력하는데 주님의 은사를 간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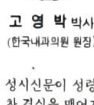
이일을 위하여 성시신문은 세상의 신문과 달리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한 신문을 간구하는 기도와 협력으로 이루어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중장로 (강원일보사 출판국)

춘천성시화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데 춘천이라는 데 기독교인의 헌신으로 굳지를 갖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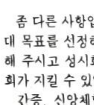
창간 1주년을 맞은 춘천성시신문이 각 교회, 남녀신교회, 기독교단체등 활동을 널리 알리고 기독교인의 역할을 결집하여 춘천성시화운동에 더 큰 기여를 하는 신문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고영박박사 (한림대학교원장)

이제 첫돌을 맞은 성시신문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앞장 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시신문이 춘천성시화운동의 역사와 춘천복음화가 시작된 이 지역의 교회역사를 자세히 알릴수 있도록 복음으로 춘천이 성시화되는 일에 큰 매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웅일안수집사 (한림대학교교회)

춘천성시신문 창간 후 1년동안 신문발행에 힘쓰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종종 다른 사립신문보다 성시화운동의 10대 목표를 선정하여 세부실천계획을 홍보해 주시고 성시화 뉴스를 정례화하여 모든 교회가 지킬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간중, 신앙체면을 두어 신자들의 신앙심과 시민들을 전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성시화 포스터, 전도, 스티커를 제작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시신문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춘천성시신문을 통하여 지역 문서선교에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상위주의 사실보도와 함께 기독교 문화와 이웃사랑의 정신을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전개하고 있는 사랑의 장기기증운동은 귀중한 생명의운동이며 강원도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강원도민의 장기기증은 도민이 이치를 받을 수 있는 특혜를 누리게 됩니다.

장기기증운동은 목회일에도 중요한 부분이므로 생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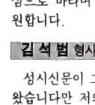
본이라고 생각합니다.

91년도 초창기부터 장기기증운동에 동참한 교회들은 앞서가는 목회자의 의식을 통하여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간단해서 장기기증을 말하라는 것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임목회자의 성향이나 생각때문에 전 성도의 일과가 차단된다면 안타까울 것입니다.

바라기는 춘천성시신문을 통하여 강원도 전역이 성시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며, 사랑의 장기기증운동을 통하여 이웃사랑을 교회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시역을 감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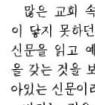


송순규회장 (춘천기독교연합회)

춘천성시신문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어 이지역에 성시화와 춘천성시신문을 발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적성장과 지역적시와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처음 뜻을 따라 불의와 결탁하지 말고 정치와 신뢰로 맺을 줄 아는 춘천성시 신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김국자장로 (강원대학교)

성시신문이 그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저의 바램은 격주 또는 매주 발행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제자를 위한 인본, 인쇄비, 우편요금까지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나 춘천지역에 하나뿐인 기독교신문으로서 모든 소식을 적기에 신도들에게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시신문이 기독교계의 각종 소식과 신앙생활을 위한 양식, 특히 이단 종교에 대한 과학적 대응지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창간 1주년을 맞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전연목사 (신원교회)

우선 성시신문 창간 1주년을 맞이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성시신문을 보면서 그동안 몰랐던 교회 밖의 일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는 주님의 말씀에 춘천지역의 성도들이 연합해서 성시신문을 지원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늘라는 성령신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춘천성시신문이 춘천에서 이룬 많은 사적과 많은 결실을 맺은 감사와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되는 성장과 든든히 서 간 이기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문화와 축제의 도시 춘천에서 춘천성시신문이 기독교 문화보급과 춘천복음화를 위한 역할을 더욱 더 확대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춘천성시신문이 종친의 연합회의 활동보고와 교계소식 안내의 주된 내용에서 탈피해 기독교 문화의 보급과 춘천시 기독교 종합안내지로서의 기능 수행으로의 내용 전환이 있었으면 합니다.

목회자나 교회의 몇몇 직분자들이 주로 애독하는 소식지가 아니라 춘천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과 일반인 모두에게 알 수 있는 그러면서도 많은 신앙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독교 종합정보지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도 기독교 출판계의 출판소식이나 좋은 기독교서적과 음반의 소개 및 추천, 각 신학교의 교육 및 행사 프로그램 소개로 확장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선 성시신문 창간 1주년을 맞이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성시신문을 보면서 그동안 몰랐던 교회 밖의 일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신문내용이 행사가 있었던 일들을 다루어 많은 것을 알게 하는 한편, 너무나도 내용이 행사 위주라 딱딱하고 딱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큰 행사만을 다루지 마시고 작지만 따뜻한 일들을 더 많이 담아 주었으면 합니다.

제가 청소년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들이 보기에 약간의 어색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쉽게는 낯설어서인지 거리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신문의 한 귀퉁이라고 성경구절을 약간씩 적어 놓는다면 기독교인으로서 일주일이나 한달동안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글귀를 적어놓는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작은 의견이지만 앞으로 성시신문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시신문을 더욱 알찬 내용으로 꾸며 주시길 기대합니다.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정간1주년을 축하합니다



춘천시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강원도 교육청 선교회

회 장 김 용 배 장로

부회장 권 용 녀 권사

총무 정 동 준 안수집사

회계 김 미 미 성도

한국통신춘천전화국 선교회

"통신이 가는 곳에 복음도 함께"



회 장 허 광 웅 장로

부회장 박 근 화 집사 총무 이 정 희 권사
감사 최 진 집사 회계 노 경 옥 집사

춘천YMCA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김 홍 규 장로

운영위원장 맹 영 웅 장로

☎ 255-1007

춘천시 운교동 174-2

새한공조닥트 (새한철력사)

▶영업품목◀

냉·난방 덕트공사, 환기덕트, 탁트기구일체, TDC기계식덕트, 스텐시공,
팬싱보온, 공조덕트전문, 환기공사일체, 공기조화설계

▶닥트제작 현장 납품▶

20년 전통의 품질제일주의 "새한 공조닥트"가 급변 세계화공급단계에
공정을 준공하여 고객 여러분께 저렴한 시공 완벽한 공사,
철저한 A/S의 신념으로 모시겠습니다.

본사 : 강원도 춘천시 효제2동 140-5번지

TEL (0361) 252-3397

FAX (0361) 257-3396

H-P : 011-372-0499

공장 : 강원도 춘천시 화계동 858-7

(화계 농공 단지 내)

TEL (0361) 263-3398

대표 박승균 안수집사

홍종대치과의원

원장 홍 종 대 집사

춘천시 조양동 50-1

(병동입구 대우증권 건너편)

☎ (0361) 255-4275

241-2875 / 242-2875

춘천택시(주)

영업택시

대표이사 한 리 도

전 무 한 영 수

춘천시 사우동 371-6

☎ (0361) 253-5757

에덴실과

각종과일

김 정 환 안수집사

☎ (0361) 256-5252

242-5252

연세치과의원

원장 고 금 출

동부시장 신한은행 옆

(크라온베이커리 2층)

☎ (0361) 241-2878

춘천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

회 장 이 영 규 장로

수석부회장 김 용 배 장로

부회장 민 병 업 장로

부회장 박 상 훈 장로

부회장 민 경 옥 장로

총무 김 용 일 안수집사

농협춘천지구 선교회

회 장 민 경 옥 장로

부회장 지 총 식 권사

부회장 고 영 선 집사

총무 김 성 웅 집사

한림대학교 선교회

회장 김 용 일 안수집사

총무 김 정 임 성도

회계 유 장 순 성도

춘천시청 선교회

고문 배계섭 장로 회장 양봉남 안수집사
부회장 이준영 안수집사, 박상자 집사
총무 이현호 집사(협동), 김동환 안수집사
회계 김용은 집사
선교위원 김남철 장로, 민병업 장로
협동선교위원 김남철 권사, 이윤자 집사,
황은주 집사, 문배자 집사

춘천지방검찰청 선교회

회 장 전 중 덕 집사

부회장 김 주 찬 성도

총무 김 만 이 성도

춘천지방병무청 선교회

회 장 최 규 수 장로

부회장 안 용 호 집사

총무 최 승 옥 집사

동원교회 총남선교회

총회장 황 병 찬 권사

제1선교회장 엄 대 섭 권사

제2선교회장 황 병 찬 권사

제3선교회장 권 오 인 권사

제4선교회장 허 근 영 장로

춘천시 효제2동 420

춘천동원감리교회

춘천우체국 선교회

회 장 채 능 수 집사

부회장 강 종 식 권사

총무 김 용 섭 집사

회계 오 순 자 집사

춘천교도소 선교회

회 장 김 용 인 집사

부회장 박 병 준 권사

총무 신 영 섭 집사

엘림 자동차부분정비업소



대표 정 한 복 안수집사

춘천시 사동동 93번지

(소양중학교 옆)

☎ (0361) 253-6397(주)

251-6399(야)

장안복집

대표 김 선 회 권사

☎ (0361) 253-8411~2

춘천고 앞에서 팔호방향쪽으로
100미터 지점

10년전통 확장개업

춘천시 조양동 6-173

파리바게트

대표 이 해 란 권사

☎ (0361) 262-1172

H.P 011-751-1172

춘천시 퇴계동 한주① 입구

공정환 법무사 사무소

법무사 공 정 환 권사

“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의
취득, 변경 등에 관한 일을 내 일같이
기독교 신앙인의 진실한 양심과 정성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춘천시 효제동 360-1

☎ (0361) 244-5374~6 FAX 244-5376

동 부 교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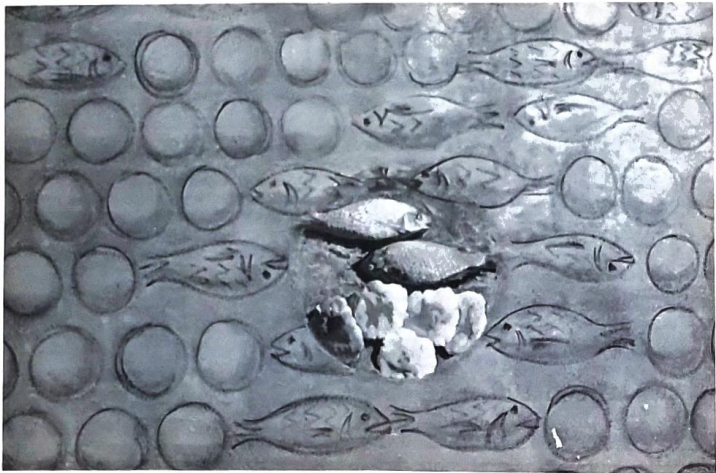
임 신 영 목사



강원도청 선교회

회장 김 봉 옥 안수집사

- 부 회 장 최 형 선 안수집사
- 부 회 장 서 영 선 집사
- 총 무 양 승 일 안수집사
- 서 기 최 방 범 집사
- 회 계 김 미 경 성도
- 감 사 조 광 수 안수집사
- 선교부장 송 윤 기 권사
- 기도부장 박 재 복 집사
- 성서부장 임 광 혁 권사
- 찬양부장 정 해 섭 안수집사
- 봉사부장 김 동 식 집사



오병이어



이 미 경

-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학과 졸업
- '큰무늬수묵' 92년

파란글 꽃그림잔치 수상집 펴내

World Vision 춘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승훈장로)은 지난 10년간 "파란글 꽃그림잔치"를 열어 어린이 백일장, 사생대회를 통해 아동들의 무한한 잠재력

을 개발하는데 힘써왔으며 8월17일 제10회 파란글 꽃그림잔치의 우수작품을 모아 수상집을 세상에 내놓았다.

우수작품, 산문부문 66개 우수작품을 수록하였으며 때론 지 않은 초등학생들의 번득이고 아름다운 글을 담은 참 좋은 책이다.



이 순 훈 장로

○ 가평군기독교연합회 창립예배가 9월 10일 저녁 8시 가평중앙교회(전용구 목사)에서 열렸으며 창립이래 첫 찬양집회를 가졌다. 13일부터 16일까지 열린 부흥회에는 정상문 목사(동원교회)가 강사로 초빙받아 설교하였다. 가평군기독교연합회는 회장 이세인 목사(연하제일교회), 부회장 조병천 목사(가평중앙교회), 총무 최기삼 목사(설악중앙교회)이며 군지역 90여교회의 연합을 위해 힘쓰고 있다.

○ 말기환자와 가족들의 육체적, 정신적 인 도움을 주기 위한 호스피스 교육이 10월 5일, 12일, 19일, 26일까지 4일간 소양제일교회에서 원주목사(생물호스피스 원장) 강의로 열릴 예정이다. 회비는 2만원(중식제공)이며 문의전화는 (0361)262-0999

○ 9월 18일 저녁 6시 30분 풍천교회(권오현 목사)청년부가 풍천군내 중·고·청년부를 초청 '21세기를 향한 20세기 영적 출애굽'이란 주제로 찬양집회를 열었으며, 9월 20일 오후 7시 풍천군청 선교회(김자경회장)는 풍천선교회(김기찬 목사)에서 9월 정기예배를 드린 후 월례회의를 열고 친교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성순 명예기자)

춘천성시테니스회 시민대상 대회 개최

-회장배 9. 18 목사 장로친선, 시장배 등 10월중에-

지난 7월 3일 창단된 춘천성시테니스회(회장 이영일 장로, 총무 맹영웅 장로)는 오는 10월 중 회경배 테니스대회와 목사, 장로 친선 테니스경기 그리고 춘천시장배 테니스대회를 시민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동 테니스회는 춘천지역 교파를 초월한 교회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일아침, 토요일 오후 4시 농공고 테니스코트에서 테니스를 통해 장로들의 건강 증진과 친목을 도모하고 연합에 힘쓰고 있다. 장로는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테니스 회원 명단

이영일, 김문수, 김철수, 이동화, 이창, 조병욱, 허광옥, 박승택, 정인규, 김용환, 김남웅, 강현욱, 이영식, 김부희, 박두빈, 김홍배, 임봉수, 김용기, 장준홍, 맹영웅(총20명)



강원노인복지회 명칭 변경키로

강원노인복지회 이사장 이영일 장로는 9월 8일 오후 1시 신원 회의실에서 세계

노인회를 맞아 '세대가 함께' 이야기 마당을 열었으며 '강원노인사랑회'로 노인

회 명칭변경 의견이 제기되어 금후 변경 절차를 취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단연구

『삼천성 승리제단』

-박태선을 하나님 이현석을 아담이라 함-

교주 이현석은 전남 구례 출신으로 광주 S상고를 졸업하고 진도관에 입교하여 박태선교주를 추종, 1980년 초에 이태해나와 경기 부천시 역곡동에 있는 밀실파로 알려진 조희성 교주의 영성교를 추종하다가 독자적으로 교단을 설립한 인물이다.

선전문에서 이 교주는 영계를 보여 주는 대 구제적으로 말해서 하느님과 마귀의 신, 혹은 조상들과 영혼까지 보여주고 에덴 동산과 낙원, 천당과 지옥도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만물통치악과 늑대 교주와 늑대인간을 소개하고 있는데 주장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그리고 삼산산의 불조조의 생명을 먹게 하여 죽을 것이 죽지 않고 썩을 것이 썩지 않게 하는 과학적 진리가 있으며 천 인류의 참된 평화 통일과 모든 종교의 숙원인 영생의 도(道)가 여기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호기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진도관에서 발행한 신앙신문(83. 3. 8)에 의하면 "하나님은 6천년동안 일었던 두(二)세. 아담과 하와를 찾은 것이 당대의 뜻이요 사정이다. 그리고 '이긴자'가 나오지 않으면 나도 지옥 간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야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영생의 역사가 이루어진 고로 이 두가지를 찾는 것이 전도관 역사의 핵심이요 하나님의 사정이다."라는 구절을 이용하여 이

씨는 자신이 바로 땅의 하느님인 박태선 교주의 영적 말씀을 알아듣고 그 사정을 아는 '참 가지'임을 암시하고 있다.

박태선 교주 즉 영모님은 창조주 하느님이지 '이긴 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영모님은 앞으로 나타날 '이긴 자'를 위하여 출제하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교리는 박태선을 하느님 자리에 올려놓지 않으면 교주 이현석씨의 자리가 없으므로 영모님을 창조주 하느님 자리에 올려놓고 자신이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이다.

박태선교주가 '이긴 자'를 찾고 방법을 말했다고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긴 자'는 이현석 교주임을 암시하고 있다.

"자유율법이 무엇이며 자유율법을 지키는 비결을 이현석이 가르쳐 주므로 '이긴 자'라는 것이며 예수를 마귀태자로 치고 영모님(박태선)을 창조 하느님으로 증거하며 원의까지 해결해주는 자가 바로 이현석 교주라고 한다. 또한 과거에 박태선 교주에 의해 마귀라고 비웃음을 받았던 자가 이현석 교주였으므로 '이긴 자'이며 이슬과 생수를 헌없이 부여 주어 인간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이현석 교주이므로 결국 '이긴 자'는 이현석이라는 주장이다."

창조주 하느님인 박태선 교주는 '이긴 자' 이현석 교주에게 살림을 맡겼다고 주

장하고 있다.

전도관(박태선)의 말로에 대해 끝장이 났다고 역설하면서 마지막으로 박태선 전도관 신도들과 교역자들은 전도관을 떠나서 자신에게 오라고 유혹의 손짓을 하고 있다.

하느님, 아담, 하와가 세(三)세인데 하느님은 박태선이고 아담은 이현석 자신이며 영성교의 조희성이 하와라는 것이다. 이 세(三)세가 영생을 주는 생명과 일을 이루게 된다고 하면서 6천년간 두(二)세를 찾지 못하여 하느님 한(一)세로부터 불완전한 신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박태선, 이현석, 조희성이 완전한 하느님의 역사를 이룩한다는 것이다.

교주 이현석을 주님으로 호칭하고 있는 삼성교회는 폐쇄적이어서 아무나 함부로 출입할 수 없으며 반드시 삼성교회 추종 신도들의 소개를 통해서만 입교가 가능하다.

영성교의 조희성 교주나 본 교단의 이현석 교주는 박태선 교주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이용하여 아담과 하와 격으로 자신을 부각시키고 있다. 특기할 일은 이교주가 노리는 것이 기성교회 신도들이나 불신자들이 아니라 박태선 전도관 신도들을 포섭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동원소식지에서)

축

성시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기독교 평화교회

PYUNGWHA METHODIST CHURCH

담임목사 한 군

교회를 섬기는 임원들

- 전도사: 김성일
- 시무장로: 김동열 장석신 김원배
- 집회식신: 원 민정옥 오문서
- 원로장로: 심이대
- 협동장로: 민철호
- 교육전도사: 김우용 유혜은 이윤옥 이일형
- 사무간사: 김유자
- 평화회관장: 리더-김진이

우리가 섬기는 해외선교사들

- 필리핀: 홍왕순 두사디 안왕현
- 태국: 유수진 오경화 오필환 정문길
- 일본: 사미다케시
- 북한: 모동익
- 브라질: 이정진
- 중국: 윤남근

- 삼봉성가대: 지혜-김은국
- 반주-손혜원(Pn) 김성옥(Org)
- 가브리엘성가대: 반주-김예스(Pn) 남지영(Org)
- 한나성가대: 반주-김예스
- 다윗성가대: 반주-최선영
- 호산나성가대: 지혜-김옥미 반주-최정아

- 인도: 최철만 신영자 백정하 현지인 목회자 11명 줄리안 데이빗 스테반 키안 데라둔신학교(NTC)
- 만주나: 송귀집
- 러시아: 방민환
- 방글라데시: 장재화
- 뉴질랜드: 유 석

영광한의원



원장 이 용 규 장로



춘천시 후평2동 801-2

☎ (0361)251-2003~4

우리의 꿈 우리의 사랑 춘천성시

중국인종 구원위해 복음들과 간 청년들

-장춘, 연길서 8일간 선교체험한 제일교회 청년부-



차 관식 목사

우리 일행은 차관식목사(제일간교회)님을 모시고 중국양의 복음선교체험을 통해 많은것을 얻었다.

고조선, 고구려, 발해 그리고 일제시대 독립투사들의 발명지로 영국의 역사를 품고있는 길림성을 들머시는 순한 이국적인 느낌과 동시에 그리 낯설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중국명은 개방되고 복음이 들어가고 있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채 죽어가고 있다.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자 길을 떠난 우리가 처음 본 교회는 대단히 크고 웅장한 모습이었으며 우리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었다.

장춘 교회 관계자의 허락으로 그 곳에서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 무언가 모르게 부딪히고 함께 이 곳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이 교회의 규모보다도 더욱 우리들을 놀라게 했던 것은 성도들의 뜨거운 열정이었다. 이들의 예배시간에 함께 참석했을 때 중국말과 말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성도들의 "아멘" 소리는 마치 구호를 외치는 듯이 우렁차고 마땅한 미소로 중국의 찬송가책을 건네주시던 분들의 모습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자진해서 교회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곳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일 오전 예배를 중국 10대 교회의 하나인 연길 조선족 교회에서 드렸는데 이 교회 역시 어마어마한 규모였고, 성도들 또한 굉장히 많았다. 우리말 설교에서 친숙한 것이었다. 장춘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곳 연길 교회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는 흡사 우리의 시골교회를 연상케 하는 자그마한 웅장 교회에서 드렸다. 장춘 교회나 연길 교회에 비하면 그 교회 규모나 성도의 수가 턱없이 적었지만, 그들의 신앙적인 열정과 믿음은 결코 뒤지지 않았다.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볼 수 있었다. 한 아주머니께서 예배 때마다 들은 설교 말씀을 정리해 놓은 작은 수첩을 받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청년부의 중국 체험 목적 중에 하나인 북한 지역 전학을 가기 위해 버스에 몸을 실어 함남지역에 이르렀을 때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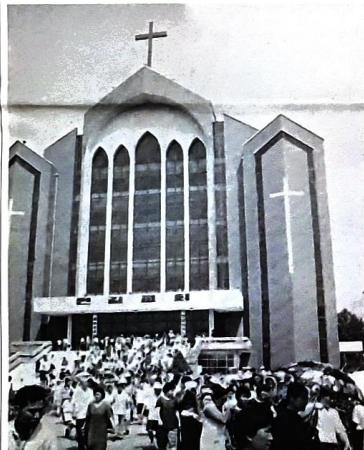
를 안내해주시던 조선족 아주머니께서 "저기 보이는 땅이 북한 땅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참으로 가까운 저 곳이 북한 땅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지리적으로 어느 나라보다도 가깝지만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지던 북한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처음에는 그저 신기하기만 했다. 삼합에서 도문으로 가는 도중 두만강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는 북한의 아이들을 몇 차례 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들의 말에 대답하는 아이는 한 명도 없었다. 우리들

은 준비해 간 성경책과 간식을 버릴 봉지에 넣어서 그들에게 주려고 하였지만 그들은 오히려 도망을 가려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강가에 그것을 놓고 모두 함께 손을 잡고 '부흥'을 부르며 반드시 말씀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 했으며 우리 동료들이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복음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날이 꼭 오기를 기도하면서 아쉬움 속에 발을 옮겼다.

8일간의 짧은 기간에 중국의 아주 작은 일부인 장춘지역과 연길지역을 돌아보았지만, 이번 여행은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중국에는 아직도 종교적인 탄압으로 인해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하 교회들이 많다는 것을 현지선교사를 통하여 들었다. 실제로 우리가 장춘 지역에서 수요일에 들린 교회는 집기들을 모두 빼앗기고 유치원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으며 또한 밖으로 찬양이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문을 꼭 닫고, 커튼을 치고, 예배를 드려야만 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끼로는 얼마나 예배에 나태해 있는지를 느끼게 해주었다. 이들 지하교회와 극히 일부이지만 우리가 직접 체험했던 장춘, 연길, 흥안 교회에서의 예배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안겨 주었다.



(제일간교회 청년부 황문주 저) 황문주 지음



▲연길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과 뜨거운 열정



▲백두산 정사에서 남북통일 및 중국복음화를 위한 간절히 기도

세계 기독교신도 중국선교대회 보고

-세계평화봉사단 주선 4개국 신도 100여명 참석-

이 학 규 장로
(춘천성시본부 사무총장)

1999년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된 중국선교대회는 한국, 미국, 일본, 이스라엘 대륙을 이어 다섯번째 세계 기독교신도 선교대회로 개최되었다.

홍콩비행기 사고 때문에 참가자의 차질은 있었으나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등 4개국에서 모인 100여명의 기독교신도들이 연길, 연남 기독교교회 등에서 뜨거운 선교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세계평화봉사단(PISC) 총재인 한인 수목사와 중국의 강소령박사의 특강이 이뤄지는 동안 안타까웠으나 장남일 목사의 '아시아 선교의 비전'이란 메시지와 특강을 통해 회원들은 충격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부추긴 좋은 이 대회에 회장으로서 특한 이유를 선교지에 갈 때마다 깨닫고 사명을 다하고자 힘을 썼다.

중국 국내 항공운행은 아직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았다.

일행이 나누어진 1진을 먼저 보내고의 자나나 없는 공항에서 7시간을 기다렸다. 그것도 못지 않게 길지, 못지 않게 도로도 불안정한 상태로... 나는 원로장로님, 권사님들의 말을 지리해 마련해 드리며 계속 기도할 수 밖에 없었다. 연길 역전호텔에 도착한 것은 밤12시가 지나사였다. 8월 28일 선교대회 1.2부를 개최하였던 대회사, 축사, 격려사들은 모두 남북의 복음통일과 중국 선교에 대한 간절한 절규

였다. 일본 대표들의 격려사도 아주 뜨거웠다.

2부순회로 노인 예술단의 공연도 있었으며 오후에는 중국선교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특강과 토론으로 모든 회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일깨워주었다. 부추하나라 준비찬송가를 인도하고 피아노 반주도 하였다. 주일예배는 두만강 건너 북한땅이 한눈에 보이는 도문시 도문교회(담임 김영일장로)에서 은혜롭게 드렸다. 두만강에는 지금도 탈북자들의 시체가 떠내려 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가지고 간 의복(500여점) 여섯바퀴는 탈북자를 위해 배 달라고 연변교회 전도사에게 전달하였다.

도문에서 버스 8시간을 달려 백두산(현지에서는 장백산이라고 함) 일대 도착 호텔에 여장을 풀고 저녁식사를 하였다.

식사는 아무런 불편이 없었으며 음식값은 아주 쌌다. 불변인 땅에는 찬송과 기도와 간증분위기를 조성하여 부흥회와 같이 자유롭게 간증을 하였다. 가이던 몇차 레나 백두산에서 절대로 기도하면 안된다 하였다. 감시원과 병방군인들이 못하게 한다고 했다. 백두산 관광 시간은 30분으로 제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백두산 정상에서 민족 복음화와 남북의 평화적 복음통일과 우리의 고도 동북3성(만주)의 영적 통일을 위한 합심기도가 아닌가!

우리들은 버스 안에서라도 통성기도 기도 하였다. 백두산 정상기도를 위하여 지프차를 타고 정상 바로 밑에까지 가서 내려다. 바위가 태풍같고 추웠다. 중국 군인들이 외곽에 둘러싸고 10달리를 받는다. 약 100m 걸어 오르면 천지가 보인다. 산소가 부족하여 숨이 가빠다. 어떤 사람은 숨이 막혀 얼었다. 모두 무릎을 꿇고 각자가 기도를 하였다.

다른 팀들이 천지를 향해 아~호!를 외쳤다. 이때 지혜를 주셔서 우리는 아호 대신 손과 "주여"를 외치고 기도하자고

격려했다. 우리는 일제히 주여! 상창을 하고 간절히 기도하였다. 우리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셨으리라 믿고 다음 코스인 장백폭포 앞에서의 예배가 계획대로 진행되어 세계기독교신도 연맹 총재인 박인자 장로님의 대표기도가 진행됐다. 84세 원로 장로님의 기도도 40~50대의 기도만이 제법 제법 했다. 갑자기 기도가 중단되었고, 5초, 10초 후 눈을 떠보니 중국변방군인 6~7명이 에워싸고 기도를 못하게 했다. 그들은 또한 김진수 장로님의 비도 오 카메라를 뺏으려 했다. 우리의 종교행위가 불법이란단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였다. 하나님께서 조선족 교로 한 사람을 보내주었다.

우리편 통역이 생긴 것이다. 또 지혜를 주셨다. 우리는 강택민 주석의 동생 강소령 박사의 초청으로 왔다고 말하면서 연변지구 정부위원 명함을 내보내고 당당히 맞섰다. 군인들은 계속 집을 주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은 평안했고 당당하게 대하였다. 우리들은 통역을 삼갔다고 하였고 결국 아무일도 없었던 일로 하라고 합의를 보았다. 나중에 한 일인데 이럴때는 돈이든 다 해결한다고 한다. 우리는 중국의 수도 북경에 도착하여 강택민 주석의 회개와 북경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였다. 중국 사회주의의 붉은 광장인 천안문 광장에서도 이 광장이 십자가 보일 정도의 광장으로, 이곳에서 세계기독교신도 열리기를 위해 손을 들고 각자가 기도하였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기뻐, 응답하시리라 믿는다. 인류 최대의 불가사의한 건축물 만리장성 1봉정상에 올라가서는 손을 맞잡고 중국 복음화를 위하여 합심기도를 하였다. 자 금상, 13층, 이화원, 북경의대대학,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북적였다. 우리 일행 모두가 건강한 것도 녀오자가 없었던 것도 선교대회 목적을 달성하고 성공한 것도 모두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경배와 찬양 무료 공개 레슨

○일시 : 매주 월요일 오후 8시~10시
○장소 : 푸른성결교회(고영일 목사)
○대상 : 찬양인도자, 반주자, 성가대, 찬양선교인으로 사역하기 원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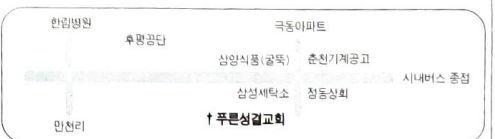
본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레슨 과목 : 경배와 찬양 영상훈련, 경배와 찬양 인도법, 피아노, 신디사이저, 드럼, 클라리넷, 음향장비, 엔지니어

○수강료 : 무료
○주소 : 200-161 춘천시 후평1동 245-14 2/3 푸른성결교회
○연락처 : (0361)251-3721

경배와 찬양 열린예배 안내

-매주 금요일 중·고·대학생 대상으로-

○일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장소 : 푸른성결교회(고영일 목사)



법무사 전원식 사무소

법무사 전 원 식 집사

(0361)251-1230

춘천시 효자2동 309-1



성시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인성병원

원장 김용대

부원장 고영박 (한국의원원장)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내분비내과
산부인과 1과, 2과, 3과
정형외과, 일반외과1과, 2과, 소아과
마취과, 방사선과

대표전화 253-3030~4
응급실 259-8118

춘천시 요신동

대한예수교 춘천중앙교회

장로회 CHUN CHON JUNG A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사 공 정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

성명전도사 : 이신자 김 사 : 노영호
지휘자 : 이만복/신석진(사우회장) 윤재호(부부전망단)
사무관 : 김민지/김민지(사우회장, 부부전망단)
반주자 : 김보미(주일학교) 김동현(주일학교)
윤정민(사비대) 윤태영(주일학교)

본 교회가 섬기는 해외선교사, 자매교회

· 인도(최현민선교사) · 일본(조영선선교사)
· 캐나다(이승호, 김옥선선교사)
· 러시아(이재현선교사) · 남아공(김주원, 강승희선교사)
· 지베코 : 일본요코하마 신성교회(오구리경 목사)



[200]1710 춘천시 되계동 669-2
교회 257-2001/2 FAX 257-2002 담임목사선 251-2002

눈으로 보는 신문

성시신문 창간 1주년을 축하합니다



한 군록사
(조선기독교연합회 총무)

“조선성시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시작한 성시화 운동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 조선성시신문의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년간의 신문활동을 통하여 이제서야 비로소 조선지역이 성시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실감을 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하던 조선성시화가 이제 구체적으로 가시화되는 느낌도 있는 것이 성시신문의 활동 덕분에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20세기가 다하여 가고 있는 지금 다가오는 새 천년, 새 세기를 맞이하기 위하여 세상은 온통 떠들썩하기만 합니다. 하지

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세속 행사에 눈을 돌리고 다사로운 세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까 고민하고 있지 않음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 답답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교회, 그리고 우리 고장 춘천을 위해 맡기신 분명한 사명을 깨달아야 할 절박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누가 목숨을 날려 나의 유산을 사람들로 듣게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과거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소명이었습니다. 이제 성시신문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 춘천을 성시화하는데 목숨을 날리는 중대한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1년, 돌아보면 대동하는 아픔과 외로움,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일들로 난처한 지경에 처했던 적이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춘천 성시화의 불이 타오르는 한 이 신문은 계속될 것이고 또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용기를 가지고 또 다시 새로운 1년 아니 새로운 21세기를 담담히 맞이하는 성시신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홍보매체의 영향력이 극대화된 이 시대에 수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많은 세속적

홍보물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기만 매우 힘이 듭니다. 육적 만족과 쾌락의 유혹들이 사방에서 매스컴을 통하여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명감은 점점 흐려져만 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상실한 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교인들만 늘어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는 무기력한 우리들의 모습에 스스로 낙심이 됩니다. 하지만 춘천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성시화의 사명은 우리로 더욱 기도하게 하고, 내 고장 춘천을 사랑하게 하며, 헌신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개인이나 교회, 민족은 결코 소멸하지 않습니다. 성시신문이 감과 있는 우리 춘천의 성도를 깨우고, 사명을 불러일으키며, 우리의 할 바를 구제화시키고, 교회와 성도간에 아름다운 소식을 서로 나누게 하여 선교, 교육, 교제를 할성과 실천하는 집에서 이미 큰 발전을 내디뎠다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이 더욱 함께 하시어 계속 성장해 되기를 기도드리며 창간 1주년을 맞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시신문 창간 첫돌의 기도문



이 윤 구 박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봄내(春內) 고을(邑乙)을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으로 택해주신 축광하기 어려운 은총을 베푸시고 춘천성시신문이 태어날지 첫돌을 맞게 하여 주심을 충심으로 감사하며 축령이는 심령을 억제할 길이 없습니다.

몇달 후면 세번째 천년왕국을 맞는 마지막 해가 옵니다. 그 거룩한 하늘나라가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동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이 감과바위의 고장, 호반의 도시에서 시작되게 하시려는 섭리가 있으신

줄 믿고 아멘 또 아멘을 목매이게 눈물로 외칩니다.

거룩(하가야모스)은 절대로 당신께만 속하고 당신의 본질, 형제, 그리고 이름에만 합당한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죄부성이, 허를 잡고 씌어질 육신(肉身)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기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아버지께서는 성스러운(하가야모스) 왕로 우리를 불러 일어나게 하시며 새 하늘, 새 땅, 새 인간을 만드시는 성역(聖役)에 한 모퉁이들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에서 더 고마운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창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생각없이 우리 자신을 성도(聖徒), 성역자(聖徒者)로 부르는 잘못을 저질러 왔습니다. 아무런 외형이나 형식이 거룩해 보여도 ‘하에로스’-하나님과 성령의 내재함으로만 거룩합니다. 높고 귀한 값있는 명에 ‘생노스’도 참 거룩한 성자의 심자기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질이 티가 없이 순결한 성결이나 참 자유

‘하그노스’도 성삼위의 영원한 생수에 씻김이 없이는 한결의 흠만 못합니다.

춘천성시운동의 일꾼들은 우선 당신의 거룩하신 발아래 엎드리게 하옵소서. 그 래야만 우리가 당신의 성전(聖殿)으로 승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 속과 같이, 안과 밖이 뚜렷한 여호와의 지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춘천과 춘천사람이 몸체로 춘천의 교회들과 하나가 되어 하늘 밑 일변지, 아니 명월의 하늘고를 제일호가 될 것입니다. 거룩은 명사와 형용사와 부사이기 전에 살아 움직이는 동사 ‘하가야조’인 것을 새롭게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몸내가 사시경준 삼천리 강토를 흐르는 성령의 강이 되게 하옵소서. 21세기의 인간가족에게 하늘 양식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이 춘천이 발이 되고 생이 되어 아버지께 기쁘시게 하옵소서.

성시신문이 복된 소식이 되어 오대양 육대주로 번져 나가게 하옵소서.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믿고 비읍니다. 아멘.

성시신문의 탑을 쌓으며

작년 9월 춘천성시신문 창간호를 내면서부터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성시본부 창립 2주년 기념행사 일정에 맞춰야 했기 때문이다. 처음 있는 신문이라서인지 자료수집, 기사작성, 사진촬영, 편집 제작비 조달 등은 만만치가 않았다. 춘천기독교 역사 100년만에 처음 세상에 내놓아야 하는 신문이기에 중압감도 있었다. 신문을 만드는데는 글과 뉴스, 사람, 여러가지 장비가 필요했다. 다른 것은 우리가 하고 내것으로 가능했으나 돈은 아니었다.

그래서인지 풀릴은 무겁게 사람의 머리를 누르고 배금주의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 무심코 던진 돌맹이에 개구리가 죽었다는 예

포소드가 있다.

어려운 재정에서 매월 50만원의 지원이 중단되어 신문일에도 IMF가 왔고 구조조정 같은 비상대책을 세워야만 했다. 그것은 인건비를 줄이고 봉사를 대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교회와 선교단체, 독자들들의 변함없는 후원으로 창간 1주년을 맞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기적이었다. 오늘이 있기까지 특별한 헌금으로 매월 지원해 주신 교회와 많은 금액을 꾸준히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좋은 글과 그림, 광고협찬으로 신문발행을 가능케 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다. 또한 신문에 대한 고견과 충고, 찬사를 아끼지 않으시고 힘을 주신 독자들도 감사사를 드린다. 기독교

에 대한 모든 소식을 묻고 신문구독과 광고면의 활약을 요청받았을 때는 쌓인 피로가 순간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1주년을 맞게 된 감회가 새롭다. 특히 신문제작일로 매달 한 두차례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함께 열려하며 무거운 짐을 나누어진 성시신문 운영위원들의 노고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많은 교회, 선교의 독자들과 동창 분위기가 고조되어가고 봉사의 뜻을 가진 80여명의 명예기자가 확보되었기에 더 좋은 신문으로 후원자와 독자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신문이 되리라고 믿는다. 여러가지 답답에 우리는 복음신문의 금자탑을 쌓아올리는 역사가 아닌가! (편집부)



허 결 목사
(뉴욕제일침례교회)

삼가 주님의 이름으로 성시신문 창간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세월은 빨리갑니다. 그동안 성시운동이 발전해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렀고 어렵고 힘든 여건 아래서도 성

시신문이 이렇게 성장해 됨을 감사 드릴 뿐입니다.

면면이 이어지는 교제소식과 성시운동의 좌표들 읽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매해마다 성시운동의 목표를 정해주시고 그 목표에 도달하는 모습을 매해마다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시운동의 과거를 조명해 보고 오늘의 성시운동을 보면서 참여를 독려하고 모두가 내일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으고 달려갈 수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컴퓨터 시대임을 감안해서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의하면 전국 시·군의 웹사이트 가운데 춘천시청이 내보내는 사이트가 제

일 우수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속에 성시운동도 언급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성시운동도 함께 소개되었으면 좋겠고 아울러 성시신문의 독자적인 사이트도 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시신문 구독자를 많이 늘려서 보다 많은 분들이 읽고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도 알차고 읽을 거리도 많아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어려운 형편 가운데로 수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부디 성시신문이 춘천을 바꾸고 전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유익을 주는 중요한 언론매체가 되어지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추

성시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베드로 정형외과



조은제 정로
베드로 병원

접수(대표) 253-5171
간호사실 257-5170
물리치료실 252-5117
사무실 253-5373
FAX 253-9552

베드로선교센터 내기관들
베드로어린이선교원 257-5141
아시아계기금 253-5373
어린이친도협회춘천지회 253-1443
강원도정년선교회 244-5400

위치: 효자2동 312-1 (법원옆)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